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시·교육위·학교·보호자 ‘왕따 방지’ 역할 분담	교토
사회·복지	4	시영 주택의 빈집을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오사카
	6	청각장애인 전용 진료센터 개설	리옹
행재정·교육	8	민간자본 활용해 재정부담 줄이는 ‘사회투자정책’ 시행	뉴사우스웨일즈
	11	역사적 지명 우선 선택 등 ‘지명규획 편제 표준’ 발표	베이징
환경·안전	13	독립형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에 440억 원 투자	뉴욕
	14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재난상황 대처에 효과적”	보스턴
	16	문자·비디오 이용해 응급상황 신고시스템 도입 추진	미시건
도시교통	17	지역별 교통상황 평가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오픈	샌프란시스코
	18	전기차 주차비 무료 등 새 주차요금 정책 시행	파리
부록	21	2015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 시·교육위·학교·보호자 ‘왕따 방지’ 역할 분담

‘대책지침’ 수립...상담체계 정비·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도

일본 교토市 / 사회·복지

- 교토市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을 더욱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교토 왕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미연 방지 및 조기 발견,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그리고 왕따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에서의 논의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5년 1월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수립해 발표함.
- 이 대책은 왕따에 대한 정의 및 설명, 교토시와 교토시 교육위원회, 학교, 보호자 및 시민의 활동 등을 담은 지침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교토시 왕따 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 교토시의 역할 : 교토시는 왕따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예산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함.
- ‘아이의 풍요로운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단

체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 교토府(교육 위원회, 경찰 본부를 포함)와 교토 지방 법무국, 교토 변호사회, 사립학교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대책을 마련함.
- 또한 학생·보호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상담 접수 체제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나 홍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함.

- 교토 교육위원회의 역할 : 왕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함.

- 임상 심리·교육·복지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 상담사를 배치해 아이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함.
- 교토府 경찰본부와 연계해 시행 중인 ‘비행 방지 교실’을 모든 시립 초·중·고등학교에 확충함.
- 왕따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갈 때, 학교 간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함.

- 학교의 역할 : 따돌림 방지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함.

- ‘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문제해결 방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PDCA 사이클 분석(계획-실행-평가-개선 4단계 관리 방법)을 수행함.
- 학생의 규범의식 함양, 윤리·도덕교육, 체험 활동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학생 자치회의를 통해 중학생과 어른 간 상호협의를 실천하도록 유도함.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함.

- 보호자의 책무와 시민·사업자의 역할 : 왕따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함.

- 폭력 문제에 대해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왕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교육 위원회 등의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함.
  - 따돌림을 행하는 가해학생도 사회적 피해자로 여기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 교토시는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2014년 12월에는 ‘아이의 풍부한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왕따 방지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게시하고 있음.

<http://www.city.kyoto.lg.jp/kyoiku/page/0000178040.html>

<http://www.city.kyoto.lg.jp/kyoiku/cmsfiles/contents/0000178/178040/sisin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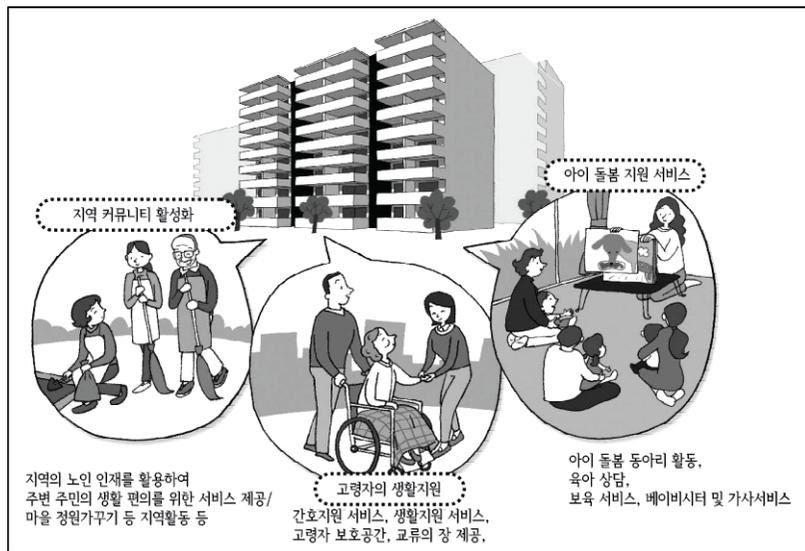
[http://www.city.kyoto.lg.jp/kyoiku/cmsfiles/contents/0000178/178040/r\\_ijimenakusou.pdf](http://www.city.kyoto.lg.jp/kyoiku/cmsfiles/contents/0000178/178040/r_ijimenakusou.pdf)

# 사회·복지

## 시영 주택의 빈집을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오사카市는 시영 주택단지의 1층 빈집을 비영리단체 등에 제공하여, 고령자 생활 지원과 육아 서비스 제공 등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16곳에서 아이 돌봄 지원, 고령자 생활 지원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커뮤니티 거점에서 시작해 주민 베희시장이나 특별 강좌, 크리스마스 모임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커뮤니티 활동 개념도

- 교토시는 2015년 2월 12일에는 신규 사업 대상자 모집의 선정결과를 발표함.

선정 단체	선정 이유
NPO법인 스루노미	방과 후 시간의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며, 지역에 밀착한 활동의 전개를 도모하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유우카리	현재 고령자·장애인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밖 운영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토키	주택의 장점을 살린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며, 특히 이용자 생활 지역에 밀착한 보육으로 지역의 장애아를 지역주민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미소의 숲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주택 간호 사업과 생활 상담을 진행하여 지역 고령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교류의 장으로 사용되는 커뮤니티 시설도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시영 주택의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요도가와 어린이 센터의 지원사업** : 어린이 상담실 ‘포핀즈(ポピンズ)’를 개설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어린이 자신이나 친구, 가족에 대한 내용을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 아동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에서 어린이를 지원할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도록 노력하며, 아파트 단지 내 바자회 등의 행사를 시행함.
- **만남 카페 코스모스** : 마을의 상징화인 코스모스를 이름으로 한 이 카페는 인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매일 약 30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단지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이용자가 있음. 매출은 하루 8,000엔 ~ 1만 3,000엔(약 7만 4,000원~12만 원)정도임.
- **점심에 제공되는 빵**은 인근 지적 장애인의 작업장과 연계를 맺어서 조달함. 이용자가 카페를 방문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는 하지 않으며, 간호 관리사를 배치해 건강상담도 진행하고 있음.



단지 내 바자회 모습



만남카페 '코스모스'의 활동 모습



'햇빛 카페, 친구 광장'의 활동 모습

- '햇빛 카페, 친구 광장' : 오사카시 어린이청소년국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육아 상담과 구연 강좌 등 부모와 아동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여 부모의 보육 능력을 높이는 활동도 진행함.
- 이외에도 '책 대출 사업'을 추진해 주민끼리 책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 치매 예방·간호 예방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027487.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297958.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297/297958/02.senteikekka\\_H26.pdf](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297/297958/02.senteikekka_H26.pdf)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297/297958/03.chirashi\\_H26.pdf](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297/297958/03.chirashi_H26.pdf)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027/27487/katudou.pdf>

## 청각장애인 전용 진료센터 개설

프랑스 리옹市 / 사회·복지

- 리옹市는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를 펼치는 플랫폼을 시립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에두아르 에리오 병원(Hôpital Edouard Herriot)에 신설함.
- 에두아르 에리오 병원은 낮 시간 진료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통원

전문 병원 CLIMA(Clinique de Médecine Ambulatoire)에 소속되어 있음. 수화 통역사가 진료 시에 동행하며, 청각장애인 환자가 상담을 원하면 청각장애인 전문의와의 상담시간 예약이 가능함.

- CLIMA 병원 입구에서 수화사용이 가능한 안내원이 청각장애인 환자로부터 진료예약을 접수함(주: 프랑스 병원은 100퍼센트 사전예약제로 운영됨).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수화를 사용하는 간호사가 진료과정에 동반해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 병원 주 대기실의 전광안내판과 복도 바닥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의 안내표지가 진료센터별 대기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함.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사가 배석하여 이 병원의 각 과 전문의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류마티즘 전문외과, 내과, 신장전문 내과, 내분비학과, 혈관의학과 등).
- 2015년부터 15일마다 몽-도르에 있는 정신의학과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신건강 상담도 같이 이루어짐.
- 수화가 가능한 일반의 진료는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저녁 5시(점심시간 제외)이며, 예약제 진료임. 예약은 이메일·문자·전화·팩스로 가능하며, 차후 영상통화를 이용한 진료도 진행될 예정임.

<http://www.lyon.fr/actualite/handicap/plateforme-daccueil-et-de-soins-des-patients-sourds.html>

## 행재정·교육

### 민간자본 활용해 재정부담 줄이는 ‘사회투자정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행재정·교육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증가하는 정부의 사회비용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비영리 기관의 협력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모형을 발표함. ‘사회적 영향을 위한 투자 정책(Social Impact Investment Policy, 이하 사회투자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회투자 정책은 시범사업이었던 사회투자 채권(social impact bonds)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발의됨. 주정부는 2013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및 시설 서비스 이용 방지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전달에 민간 자본의 재정지원 모형을 도입시킴.
  - ‘뉴핀 사회적 혜택 채권(Newpin Social Benefits Bond)’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7백만 호주달러(약 60억 원)를 모금하여 가출 청소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게 재정 지원을 함.
  - 같은 해 10월, 가정폭력,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선협회 채권(Benevolent Society Bond)’을 발행하여 1천만 호주달러(약 86억 원)를 조성함.
-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두 개의 사회투자 채권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지출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서비스 수행 실적에 따라 기관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책임성과 동기부여가 강화됨.

-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커서, 현재까지 연간 10~12%의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사회채권 모형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한 정부 지출 감소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을 위탁가정 서비스에 맡길 경우 1인당 연간 6만 6천 호주달러(약 5천 6백만 원)의 정부 지출이 수반되었음. 이 같은 막대한 정부 지출이 절약될수록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은 증가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채권 발행, 기금 전달, 그리고 객관적인 사회서비스 실적 관리에 한정됨.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주정부 아동 법원에 의해 판단됨.



사회투자 채권 모형도(뉴핀 사회 채권)

- 투자자들에게는 민간 투자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익률과 좋은 투자 조건이 보장됨. 7년 만기인 뉴핀 사회채권을 예로 들면, 청소년 가정 복귀율이 60%일 때 수익률은 7.5%, 복귀율이 65%일 때 수익률은 12.0%, 그리고 복귀율이 70%일 때 수익률은 15.0% 등 사회서비스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증가함. 첫 3년 동안에는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5.0%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주정부는 이번 사회투자 정책 발의서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주요 영역을 제시함. 첫 번

째는 만성질환 관리이며, 두 번째는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의 재범 감소, 세 번째는 정신 질환자의 병원 입소 관리, 네 번째는 청소년 가출 방지 및 감소임.

- 위 네 가지 영역은 주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회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로 주로 시설이 필요한 분야임. 시설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소하더라도 가급적 단기간 내에 퇴원 혹은 퇴소를 촉진함.

#### 사회투자 정책 주요 영역

투자 영역	기대효과	실적 측정
만성질환 관리	· 보건서비스 재정 지출 효과성 향상 · 미래 주민들의 보건 욕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자원 비축	· 만성 질환자 병원 입소율 감소 ·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 감소 · 응급실 이용 감소
보호관찰 사범 재범 감소	· 지역사회 안전 향상 · 보호관찰 지출 감소 · 보호관찰 사범의 지역사회 통합 및 고용 촉진	· 2년 내에 감금 서비스로의 복귀 감소 · 재범 발생 시 범죄의 심각성 경감 및 재범 발생까지의 기간 증가
정신질환 병원 입소 관리	· 정신질환 발생률 및 중대 질환 감소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교육 및 노동시장 기회 확대	· 정신질환 시설 입소율 감소 · 응급실 출원 감소 · 입소 시 입원 기간 감소
청소년 가출 방지 및 감소	· 주거 안정성 향상 · 정신 보건 및 생활 기술 향상 · 가출 청소년들의 교육성과 및 고용률 향상	· 고용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증가 · 응급실 및 병원 입소율 감소 · 사법 서비스 이용 감소

- 주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제안서를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민간 및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회투자 영역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nsw-delivers-australias-first-social-impact-investment-policy>

[http://www.dpc.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68339/Statement\\_of\\_Opportunities\\_2015\\_WEB.pdf](http://www.dpc.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68339/Statement_of_Opportunities_2015_WEB.pdf)

## 역사적 지명 우선 선택 등 ‘지명규획 편제 표준’ 발표

중국 베이징市 / 행정정·교육

- 베이징市는 지명 기준을 확립하고자 ‘지명 규획 편제 표준(이하 지명표준)’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지명표준’에서는 지명이 “역사를 존중하고 관습을 고려하면서 규획하여 쉽게 찾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지명을 결정할 때 역사적인 지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역사문화 보호지역 내에서 신축 혹은 개축되는 도로가 원래 지명을 사용할 수 없으면, 파생된 이름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역과 기존의 지역 이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선택된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음. 우선 지명도가 높을 때, 높은 것을 택하고 낮은 것을 버림. 또한 지리적 규모는 큰 것을 택하고 작은 것을 버림. 그리고 연대에 따라, 오래된 것을 남기고 최근의 것을 버림. 더불어 문화적 품격에 따라 우아한 것을 택하고 저속한 것을 버림. 마지막으로 지명에 대해 남아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창의적인 지명을 택함.
  - 예를 들어, 베이징 초기에 개통된 387번 버스 노선 중 ‘샤오관(小關)’이란 정류장은 올림픽체육관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된 이후 ‘올림픽체육관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됨. 반면 청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홍차오(紅橋)’라는 다리는 이미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후통(胡同, 베이징성 안에 산재한 전통적인 골목길)’은 역사가 담긴 중요 지명으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함. 역사적인 지명을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면, 적당한 이름으로 순화하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꾸어서 역사적인 지명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함.
  - 편창(糞場, 대변장소라는 뜻) 후통은 편장(奮章) 후통으로, 스키랑(屎殼郎, 말뽕구리라는 뜻) 후통은 스키랑(時刻郎) 후통 등으로 개명한 후 사용하게 됨.
-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 간선도로, 교량, 지하철 역명은 시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거리·광장·공원 등도 구(區)와 현(縣)내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지명이 서로 같은 의미이면 같은 이름으로 판단하는데, ‘중산루(中山路)’와 ‘중산가(中山街)’의 경우가 그러함. 다만 지명이 서로 같은 의미이나 다른 종류이면 같은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중관춘일가(中關村一街)’와 ‘중관춘일교(中關村一橋)’의 경우가 그러함. 혹은 같은 지명이라도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로 구별이 가능할 때는 예외임.
- 국가 지도자의 이름이나 외국인의 이름, 외국 지명, 현대인의 이름을 지명으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시 외의 행정구역 이름을 지명으로 삼는 것도 적당하지 않음. 공공건축물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함.
- 지명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 혹은 중국어-외국어가 결합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됨. 지명 안의 숫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함. 지명은 대중이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사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발음상의 문제, 다른 지역으로 혼동할 수 있는 이름을 피해야 함. 이 외에 도로 이름은 가(街), 로(路), 도(道)와 같은 다른 수준의 명칭을 사용해야 함.

(출처: 北京晚报, 2015-02-02)

## 환경·안전

### 독립형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에 440억 원 투자

미국 뉴욕시 / 환경·안전

- 뉴욕시는 지역 단위에서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체계인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시설에 4천만 달러(약 440억 원)를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마이크로 그리드는 재난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고 여름철 전력 수요과잉에 대한 완충 효과가 기대됨.
- 마이크로 그리드는 독립적인 전력 시설망으로 기존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 또한 병원, 학교시설 등의 핵심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을 이용하기도 함.
  - 마이크로 그리드의 장점은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보다 효율적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전력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에 용이함.
  - 이러한 시설은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 장치를 결합해 수요관리가 어려운 여름시즌의 피크 시간대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체 전력망 내에서 전기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도와줘 비용면에서도 대규모 시설 확충보다 효과적임.



2012년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Sandy) 이후 전력 공급을 위해 공사 중인 모습

- 뉴욕시는 ‘뉴욕 프라이즈(New York Priz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시설망에 대한 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금이 7백만 달러(약 77억 원)에 달함.
  - 뉴욕시는 선택된 25개의 제안된 사업에 대해 5만~7만 달러(약 5천 5백만~7천 7백만 원)의 지원을 통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며, 이 중 다시 걸러져 올라온 사업에 1백만 달러(약 11억 원)를 지원하여 실제 디자인을 수행하거나, 7백만 달러(약 77억 원)의 건설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뉴욕시는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자연 재해 등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서울시도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http://www.emergencymgmt.com/disaster/New-York-Offering-40-Million-Encourage-Microgrids.html>

##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재난상황 대처에 효과적”

미국 보스턴市 / 환경·안전

- 2013년 4월 15일 보스턴市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음. 폭발이 일어나고 10분 후 도시의 모든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된 상황에서 시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파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
- 사건 발생 직후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러한 대처는 올바른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줌. 이에 따라 여타 미디어들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며, 확산되는 정보를 통해 시민들을 재난상황에 맞춰 통제할 수 있었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 현장

- 하버드 케네디 스쿨(Havard Kennedy School)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첫째는 소셜미디어의 범위임. 소셜미디어는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정보가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파급효과가 있음.
  - 둘째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는 소셜미디어로 시민들의 신속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음.
- 소셜미디어는 재난상황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대응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

<http://www.emergencymgmt.com/training/Social-Media-Lessons-Boston-Marathon-Bombing.html>

## 문자·비디오 이용해 응급상황 신고시스템 도입 추진

미국 미시건주 등 / 환경·안전

- 미국 미시건주에서는 긴급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문자·비디오 전송을 이용해 응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기존 시스템은 휴대폰의 문자를 수신하여 대응할 수 없었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 오클랜드 카운티 응급상황실은 사진·문자·비디오 등으로 전송되는 내용을 추적하고 이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임. 이러한 사진·비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상황실에서 생생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해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됨.
  - 문자를 이용한 응급대응 방안은 대규모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등의 기존 통신 시스템이 가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2014년 응급신고의 84%는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음. 휴대폰은 문자·이미지 전송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를 통한 응급신고 접수는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코네티컷주에서는 2015년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는 NG911(New-generation 911)을 시범운영하고, 2016년에는 전면 교체할 예정임.
  - 또한 새로운 911 시스템에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충돌사고를 감지할 경우 이 정보를 응급상황 센터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http://www.emergencymgmt.com/next-gen-911/Michigan-County-Debuts-Text-to-911.html>

<http://www.emergencymgmt.com/next-gen-911/Illinois-Counties-Barriers-Next-Gen-911.html>

<http://www.emergencymgmt.com/next-gen-911/Next-Gen-911-Two-States-Two-Approaches.html>

# 도시교통

## 지역별 교통상황 평가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오픈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도시교통

- 샌프란시스코시는 '2035 Plan Bay Area'를 통해 수립된 도시 교통 계획안에 따라 지역별 교통상황 트렌드를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바이탈 사인(Vital Signs)'을 개설함. 시정부는 '바이탈 사인'을 통해 교통 계획에 따른 변화를 자료로 수집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성공적인 정책이나 인프라 확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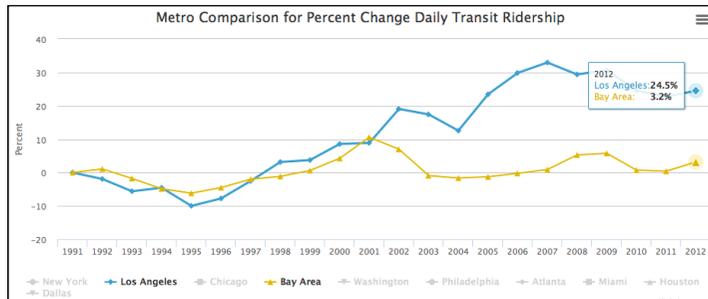


Vital Signs 웹 사이트 모습

- '바이탈 사인'은 2013년 제정된 법안에 따라 시 교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지표로 지역별 교통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이 웹 사이트에서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과 인구조사, 토지 이용 등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환경·주유소 가격변동·채용 상황 등의 사회경제 데이터도 활용할 예정임.
  - 사용자들은 시민들의 통행수단·통행량·혼잡도·교통상황 등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줌. 또한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웹 사이트에서 가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요구에 맞게 시각화하여 사용이 가능함.
- 교통위원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바우틴(David Vautin)은 '바이탈 사인'의 가장 주

요한 목적은 정보들의 투명성에 있다고 밝힘. 샌프란시스코 40개 지역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각각의 기준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모든 지표가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이러한 자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교통 인프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임.



대중교통 통행량 비교 자료 모습(1991~2012년 데이터 분석자료)

<http://la.streetsblog.org/2015/02/06/new-data-website-tracks-bay-area-vital-signs/>

<http://www.vitalsigns.mtc.ca.gov/street-pavement-condition>

## 전기차 주차비 무료 등 새 주차요금 정책 시행

프랑스 파리市 / 도시교통

- 파리市는 지난해 12월 시내 거리 주차요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함. 파리시는 주차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구역을 단순화하여 이전의 3구역제에서 2구역제로 바꾸고 차등 구역을 각 구의 경계에 따라 나눔. 이 정책의 목적은 자가운전자들이 '회전율이 높은 구역'에 장시간 차를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 회전율이 높은 구역이란 여러 시설 때문에 자동차 운행률이 높고, 단시간 주차 수요가 많은 상권과 기업 구역 등임.
- 파리시가 공급하는 주차면적은 이미 꽉 참. 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점유 비율은 매우

높아서, 파리시 공공도로의 18%가 주차장으로 쓰일 지경임. 2001년 이후 공용 주차장 요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종전 하루 15프랑으로 약 2.3유로, 약 2,900원), 시민들은 자가용을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이나 대안적인 이동방식(공영자전거, 공영자동차) 등을 이용하게 됨.

- 이 정책으로 ‘도로에 들러붙은 자동차’ 현상이 나타나 장기주차 자동차들이 파리시의 제한된 공공공간을 지나치게 오래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파리시는 자가운전자들이 자동차 대신 다른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용 주차장의 82%에 달하는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하도록 유도함.
  - 이를 위해 파리시는 지하주차장 허가업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주차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특히 자가용 운행횟수가 적은 운전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 바뀐 정책에 따르면, 전체 자가운전자는 종전에 저녁 7시 이후 무료주차가 저녁 8시 까지 유료주차로 전환됨.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주차임. 또한 토요일에는 파리 시내의 모든 도로상 주차가 유료임. 혼잡 지역과 회전율이 높은 지역에 모두 적용됨. 그리고 작년까지 시행되던 8월 휴가철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함.
- 거주 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 시 요금이 할인됨. 기존의 3구역제가 2구역제로 단순화되면서, 1구역(파리 도심)은 시간당 4유로(약 5,000원), 파리 외곽의 구역에는 시간당 2.4유로(약 3,000원)가 적용됨.



파리 1~11구는 1구역(오렌지색), 12~20구는 2구역(보라색).非公주민 주차는 1회 2시간으로 제한

- 파리 거주민에게 가격할인이 계속 적용해 거주 구역에서 하루 주차요금 1.5유로(약 1,800원), 7일 연속 주차 시에는 총 9유로(약 11,000원, 일요일은 무료)를 부과함.
  - 각 주차구역 내 상공인들은 낮 시간에는 거주민과 같이 하루 1.5유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는 거주 구역 외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2시간 제한주차),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파리 주민에게는 주차비가 무료임. 1월 1일 이후로는 천연가스 자동차까지 혜택을 확장함. 하이브리드 연료 자동차를 보유한 파리 주민 또한 조만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저공해 자동차가 거주구역에 주차할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파리 거주자와 같이 주차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하이브리드 연료 자동차 보유자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예정임.

[http://www.paris.fr/accueil/deplacements/stationnement-ce-qui-va-changer-a-paris/rub\\_9648\\_actu\\_151631\\_port\\_23738](http://www.paris.fr/accueil/deplacements/stationnement-ce-qui-va-changer-a-paris/rub_9648_actu_151631_port_23738)

## 2015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

도쿄都 / 마스조에 요이치(舩添要一) 도지사 .....	23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	26
뮌헨市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시장 .....	27
바르셀로나市 / 싸비에르 트리아스(Xavier Trias) 시장 .....	30
베를린市 /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	32
베이징市 / 왕안순(王安順) 시장 .....	34
샌프란시스코市 / 에드윈 리(Edwin M. Lee) 시장 .....	36
시애틀市 / 에드워드 머레이(Edward B. Murray) 시장 .....	38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	40

---

## 도쿄都 /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지사

- 올해는 전후 ‘일본의 고희’라고 할 고비의 해로,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본의 주춧돌을 쌓아 올린 선인들의 노고를 다시 되새기고자 함.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자손들의 세대에 올림픽·장애인 올림픽의 긍정적 유산을 남기고 일본 전체를 건강하게 해야 함. 자유와 평화로운 사회,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켜나가고 일본을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함.
- 벌써 2015년으로, 21세기를 영광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솔직한 감상임. 지난 20년간 디스플레이션으로 도민들은 어두운 마음으로 생활해 왔으나 사회에 밝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함. 나는 ‘21세기를 영광의 세기로’라는 결의로 도정 운영에 임할 것임. 2020년까지 앞으로 5년이 도쿄와 일본을 부활시키는 큰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임.
  - 연말에는 앞으로의 도정의 큰 방침이 되는 장기 비전을 발표해왔음.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시작되고 다음 달에는 예산을 심의할 도의회가 시작됨. 마음을 단단히 하여, 도쿄 그리고 일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도청 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였으면 함.
  - 주지사에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음. 작년 한 해 동안 보좌관 제도의 도입, 정책기획국의 창설 등 소통이 악화된 조직 풍토를 불식하고 거버넌스의 확립에 노력하여 왔음.
  - 도쿄도는 확실히 강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음. 도청 직원 모두가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논의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직원들에 의해 새로운 구상들도 나옴. 이렇게 좋은 방향에 있을 때, 장점을 늘리고, 나쁜 점은 빨리 제거해야 함. 그러한 의미에서 업무 방식에 대해 여러분에게 3가지를 부탁하고자 함.
- 첫째는 더욱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나쁜 소식일수록 신속히 알릴 것’을 당부하고자 함. 도청 직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함에 있어, 도지사에게 좋은 보고 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쳇바퀴처럼 반복적으로만 일을 하면 실패는 적을 수 있음. 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숨기고 불완전한 것을 못 본 척 하는 것이 더 무거운 잘못임. 너무 늦으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함.

- 도쿄도는 하나의 팀으로서 조직을 이루어나가고 비록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팀 전체가 함께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함.
- 두 번째는 ‘도쿄도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일해달라’는 것임. 물론 치안, 방재, 복지·의료, 교육 등 지방자치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함. 국가적, 국제적 문제가 산적한 오늘, 더욱 넓은 시야를 갖춰 일을 추진함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우리는 ‘도쿄 한 곳만 집중’이라는 비판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있음. 도쿄라는 도시는 결코 도쿄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연말 후쿠시마현의 새 지사가 도쿄도청을 방문하여 재해 복구에 대한 도쿄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함. 우리는 도호쿠의 재해 지역을 잊어서는 안 됨. 특히, 전력의 공급원인 후쿠시마, 니가타 지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또한 식량 공급도 지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도쿄와 지방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좋음.
  - 동시에,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 국경을 넘어 인구가 이동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없다면 일본은 힘을 잃게 됨. 그리고 해외투자로 인한 경제력으로 도민과 국민의 복지, 의료, 교육을 지원해야 함. 따라서 도쿄는 ‘국가 전략 특구’라는 수단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전략을 실행해야 함.
- 마지막 세 번째는 2020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은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함. 자신의 부서 일이 아니라는 등 방관자적 태도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다음 달에는 대회 개최 기본 계

획이 IOC에 제출될 예정임. 도쿄도의 조직은 직원 수 16만 5천 명 정도로 규모가 크고 분야도 다양함. 경시청과 도쿄 소방청 등 도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음. 도쿄도의 부서들이 모두 제각각이라면 결코 조직위원회와 정부, 민간과 힘을 합칠 수 없음. 따라서 자신의 부서의 조직 논리만으로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발휘해야 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진행 업무도 맡아야 함. 또한 이러한 모습은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제공하고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할 것임.

-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도쿄 대회는 국가적으로도 큰 사업이며 도쿄도 전 직원이 모두 뜻을 합하여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불가능함. 역사적 쾌거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최고의 대회를 모두 함께 성공시키도록 노력해볼 것.

- 올림픽·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세기의 이벤트에 종사하여 도쿄라는 도시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은 50년 후, 100년 후에도 자랑으로 여길 일임. 앞으로 도청직원들의 자녀가 가슴을 피고 자신의 부모가 이 대회를 성공시켜서 도쿄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말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국면도 함께 힘을 합쳐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임.

[http://www.metro.tokyo.jp/GOVERNOR/ACTIVITY/150105\\_01.htm](http://www.metro.tokyo.jp/GOVERNOR/ACTIVITY/150105_01.htm)

##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 런던市는 2014년 다양한 방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 해를 보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교통 분야에서 버스 및 지하철의 이용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 역시 증가하였음. 특히 지하철의 경우 하루 평균 57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자전거의 경우 58만 명의 시민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택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저가 주택이 건설되었고, 범죄율이 낮아졌음. 또한 뉴욕과 파리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가 되었으며, 올림픽 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재개장되었음.
- 런던市는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15년 만에 최초로 지하철 노선(Northern Line)이 연장되어 개통될 예정임. 주말동안 지하철의 일부 노선을 24시간 운행하고,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며 운행 시간을 연장하도록 노력할 것임.
  -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 다리(London Garden Bridge) 사업이 추진되는 중이고, 런던 올림픽 부지에는 대학, 박물관, 극장 등이 들어서 문화 허브 올림피코폴리스(Olympicopolis)가 건설될 예정이며, 그 밖에 런던을 동-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도로(Cycle Super Highway)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런던시가 권장하는 런던 최저임금(London Living Wage)을 더 많은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014년 11월 런던시가 발표한 런던 최저임금은 현재 9.15파운드(약 15,600원)로, 이는 영국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6.50파운드(약 11,000원)에 비해 약 40% 많은 금액임.

<https://www.politicshome.com/economy-and-work/articles/news/boris-johnson-urges-firms-pay-london-living-wage-2015>

<https://www.youtube.com/watch?v=FtuoDdG5EDA>

## 뮌헨市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시장

- 뮌헨 시장은 지난 1월 13일, 관보 특별호를 통해 2015년의 정책 수행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하였음. 이 신년사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로 밝히고, 10가지 분야(주택 신축 및 임대주택 확충, 교통, 교육, 체육, 기타 도시공간·도로·광장의 개발, 문화, 사회 정책, 환경·기후 보호 및 보건, 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걸친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주택 신축 및 임대주택 확충 :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2015년 뮌헨시의 역점 사업은 ‘제6기 뮌헨 주택(2011 ~ 2016)’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실행안은 저렴한 주거 공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실행안 시행을 위해 시청 각 부서를 망라한 전담팀이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연간 8,000호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주택건설 조항을 통한 주거 신축이 추진될 예정이고, 지역별로 주거 건설과 기반시설의 건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 교통 분야 : 2006년에 수립된 ‘교통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통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자전거 이용자 배려를 위해 구 시가지 내에 남북 순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MVG Rad’를 도입할 예정임. 시내 125개의 정류장에서 1,200대의 공용 자전거를 뮌헨 시민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지역이 뮌헨 전역으로 확대되며, 어플리케이션 ‘MVG Fahrinfo München’으로 전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함.
- 문화 분야 : 2015년 시 예산 중 문화사업에 배당된 액수는 1억 8,400만 유로(약 2,267

역 원)으로 독립영화산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문화산업의 촉진 비용과 시립 ‘국가사회주의(Nazi)’ 문서보관소의 운영비 등에 투입할 계획임.

- 시 문화국의 주도하에 ‘창작의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에게 주거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예술적 기반 시설 역시 시의 성장에 맞추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 종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30일에는 시립 ‘국가사회주의(Nazi)’ 문서보관소가 개관하여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임. 이 공간은 과거 뮌헨시가 국가사회주의에 협력했던 과거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장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타 행사를 위해 다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 사회 정책 분야 : 2015년 1월 1일부터 주거보조금 내지 육아보조금의 수혜자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던 뮌헨패스(München-Pass)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민자 증가에 따라 청소년과 어린이 연령층이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뮌헨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
- 청소년 및 어린이 주거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교육 정책과 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각각의 모국어와 고유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 역시 제공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전쟁과 재난 등으로 뮌헨 지역으로 망명해 온 이주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빈곤 퇴치를 위한 유럽 원탁회’에 참여하여 보편적인 인류 복지에도 이바지할 것임.

- 에너지 분야 : 2015년에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 2025년까지 뮌헨 전 지역이 사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목표에 접근해 나갈 예정임.

- 2015년에는 뮌헨 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세 곳의 풍력발전소의 운영을

개시하여, 약 65만 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됨. 이로써 뮌헨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35억 kWh로, 뮌헨 주민의 절반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임.

- 뮌헨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하나인 장거리 원격 난방 시스템 역시 재생에너지를 통해 운용될 계획이며, 오는 가을부터 공사에 돌입할 예정임.
-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 2015년에는 뮌헨시 관청 내에서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생이 기존의 27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는 이민자 가정의 학생 및 직업교육생을 위한 배려도 확대됨.
- 뮌헨시는 이미 UN의 장애인 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이미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19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임.
  - 뮌헨 지역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 행정청에서도 다양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임.

<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finfos/Presse-Service/Rathaus-Umschau-2015/Halbjahr1/Jahresvorschau-2015/Jahresvorschau%202015.pdf>

## 바르셀로나市 / 싸비에르 프리아스(Xavier Trias) 시장

- 바르셀로나 시장은 신년 인사에서 경제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모두가 이 도시에서 동등한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정책에 힘을 쓸 것이라 밝힘. 그러기 위해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 그리고 국제 프로젝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함.
- 바르셀로나가 동력이 되어 스페인 전체 경제 부활의 선두에 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발표함. 첫 번째로 경제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며, 두 번째로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임. 시장은 사회의 진보 없이 경제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세 번째로 바르셀로나의 도시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스마트 도시의 기술 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 경제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취업 알선 프로그램(1,500명의 사회적 소외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 중 437명이 일자리를 구함), 지역에서 일하기(3,000명, 37%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구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르셀로나(750여 개의 영구 계약, 80% 이상이 젊은이들임), 고용약속(40세 이상, 그리고 소외의 위험에 놓여진 1,340명의 실직자들의 고용안정화 약속), 장애인 취업알선 네트워크(장애인 510명의 계약), 청년 실업을 대처하기 위한 계획(젊은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 특히 관광업은 경제위기의 시대를 잘 견디어 주었던 매우 역동적인 경제부문임. 책임감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업을 육성해야 함. 그러기 위해 불법 숙박업을 단속하고, 현재 집중되어 있는 관광업을 곳곳에 분산시키고자 함.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는 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도시가 되기를 원함.
  - 또한 바르셀로나는 모바일 기술, 스마트 시티, 전기 자동차, 청정 에너지, 생물 의약, 농산물 산업, 항해업 등 미래 정책 분야에 기대를 걸고 있음. 최근 바르셀로나는 기술·혁신·고급 서비스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 모바일의 수도이며, 유럽의 혁신 수도이고, 스마트 시티

의 기준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임. 신기술은 사람들이 삶을 더 쉽게 영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열린 정부의 의지임.

- 약자에 대한 관심 :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시켰음. 원격진료클리닉(70,000명 제공, 사용자가 29% 증가), 홈 케어(20,000명 제공, 가구 16% 증가), 식량지원(1,800만 유로, 2011년에 비해 132% 증가), 빈곤층 연료 지원(11월까지 3,660명 지원, 2012년부터 120만 유로 증가)
  -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정을 2011년보다 4배 증가시켰음. 또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사회혁신 대책(음식 유통, 연대카드, 노숙자에 대한 지원, 불법 거주지 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우리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음. 지하철의 범죄율을 30%이상 줄였음. 경찰서에 연구원을 임용해 구역별로 도시 범죄자 집단을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며, 이로서 범죄율을 10% 감소시킴.
  - 2015년에는 1억 1,600만 유로(약 1,430억 원)를 대중교통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 올해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통합 승차권(T-10)의 가격을 내렸음. 시는 400개의 충전소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8개의 급속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 시는 더 편안하면서도 생산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속도의 도시를 만들고자 함. 슈퍼 블록(기존 블록구역을 통합하는 계획)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인공이며 더 많은 도시 녹지와 에너지 자급자족, 그리고 사회통합을 만들어 내고자 함.

[http://w110.bcn.cat/portal/site/Alcalde/menuitem.324915bcba5b5254bc12bc12a2ef8a0c/?vnextoid=312f20db18dea410VgnVCM1000001947900aRCRD&vnextchannel=bcfdc83bb398b310VgnVCM10000072fea8c0RCRD&vnextfmt=formatDetail&lang=es\\_ES](http://w110.bcn.cat/portal/site/Alcalde/menuitem.324915bcba5b5254bc12bc12a2ef8a0c/?vnextoid=312f20db18dea410VgnVCM1000001947900aRCRD&vnextchannel=bcfdc83bb398b310VgnVCM10000072fea8c0RCRD&vnextfmt=formatDetail&lang=es_ES)

## 베를린市 / 미하엘 물리(Michael Müller) 시장

- 얼마 전 새로 취임한 시장에게 2015년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해임. 베를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도시, 이웃과의 연대 속에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우리에게 연대의식이 중요함. 베를린에는 자국의 전쟁과 테러로 인해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졌음. 지금 우리는 함께 하는 이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임. 베를린은 역사를 통해 곤경에 처한 상황에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
  - 이것은 사실 동네마다 새로운 과제이며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음. 그렇지만 우리는 피난민들을 환영해야 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포퓰리스트(populist, 대중 영합주의자)적인 경향에 맞서야 함. 市와 각 區는 올해 약 5천 명의 피난민들을 위한 거처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베를린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했음.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어 현재 실업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외국과 타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베를린시로 이주해왔음. 그러나 새해에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음.
  -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제들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솔직하게 거론하는 일임.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가 20만 명임. 즉 우리에게 생계를 충당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함. 신공항의 완공도 우리의 큰 과제임.
  - 저소득층과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도시 안에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함. 오래된 학교시설도 개선해야 함. 그리고 관청업무도 더 능률적으로 만들어야 함. 시정부는 베를린시를 매일 조금씩 향상시켜나갈 것임.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 문제해결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때 시의 미래는 보임. 새로움을 향한 용기 없이는 베를린은 베를린이 아님.
- 베를린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도시임. 현재 수십만의 사람들이 스포츠협회에 가입해 있고, 올림픽 스타디움을 비롯해 수많은 경기장을 갖고 있음. 시는 올해 2024년의 하

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전력할 것임.

- 올림픽은 베를린시의 진짜 기회임. 호사스러운 대회가 아닌, 시민의 참여와 기존 도시시설을 철저히 이용하는 소박한 대회로 계획하고 개최한다면 베를린시는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진정한 개혁-올림픽(Reform-Olympiade)에 가장 적합한 도시일 것임.
  - 올림픽의 계획과 실현은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시는 대회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림픽-시민의견조사법’을 통과시켜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것임. 이후 시는 기존 스포츠시설의 확장과 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정치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도시, 각자가 전체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임. 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공공복지가 강화된 도시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총체적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1만 명을 추가로 더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임. 장애아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학교 수를 늘릴 것임.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며 학생 직업사무소를 설립할 것임.
  - 이주자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도 확대하고 가정폭력방지 지원시스템을 개편할 것임. 요양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비도 시 예산에서 지원할 것임.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해 시정책 결정과정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임.
- 베를린시는 다양한 동네로 구성된 도시임. 시정부는 2015년 3월부터 시 회의를 각 구에서 한 번씩 개최하여 현장에 나가는 시정부가 될 것임.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4/pressemitteilung.247284.php>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pressemitteilung.249593.php>

## 베이징市 / 왕안순(王安順) 시장

- 베이징市는 2015년 연초에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개혁개방 심화, ‘도시병’ 해결 등의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의 협동 발전을 적극 추진함. 징진지 협동 발전 기획 요강을 실천하기 위해, ‘세 곳은 한 지역’이라는 사고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수도의 비핵심기능을 활성화함. 수도로서 전략적 위치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과 산업은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야 함. 일부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기능은 외부지역으로 이동시켜 활성화시킴.
  - 3개의 중점 업무를 앞장서서 실시함. 교통 일원화, 생태 환경 보호, 산업 연계 협력 실시에 관한 연도별 업무 항목을 제정하여, 가능한 빨리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협동 발전을 위한 체제 건립을 수립하고, 행정구와 영역을 넘나드는 기획 연계를 강화함. 통일적인 생태환경보호 기획, 표준, 관리감독, 집행 체계 건립을 추진함. 공동 건립한 산업지역의 세수, 에너지 절감 등의 이익분배와 책임 분담 체제를 적극 모색함.
  - 세 지역의 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산림소유권 등 시장화 전환 제도를 점차 수립함. 지역을 넘나드는 기술, 인재 등 요소 이동과 최적 배치를 위한 정책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 여행 등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지역 시장 일원화 과정을 가속화함.
- 도시 발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굳센 의지와 확고한 결심으로, 역량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병’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인구 규모 조정 방안을 전면 실시하고, 구와 현이 조정 책임을 수행하고, 법치

관리를 강화하고, 상주인구의 증가속도를 낮춤으로서 인구 규모를 억제시킴. 거주증 제도로 포인트 적립 호구정책을 연구 제정함.

- 대기오염 문제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 해결해 왔음.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예방조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석탄·석유 사용을 줄이고, 먼지를 해소하는 조치를 전면 시행함. 오래된 자동차 20만 대를 폐차하고, 시멘트 생산능력은 700만 톤에서 550만 톤으로 축소시키고, 녹색건설 발전을 추진하였음.
  - 교통체증 문제 해소에 주력함. 대중교통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인 체증 해소 조치를 새로 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고효율의, 녹색, 경제의 종합교통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함. 4개의 지하철 노선 건설을 시작하고, 주차관리 시범지역을 조성함.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일부 실시하고, 미세먼환 대중교통을 증편할 계획임. 또한 인도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공공자전거를 5만 대로 늘려 시민들의 외출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그 밖에도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로 함.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개혁을 협동 추진하고, 발전에 필요한 활력이 샘솟게 함.
- 또한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심화하여 시행하기로 함. 중국 문화의 중심지이자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서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문화 혁신을 촉진하여 끊임없이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현대화된’ 경제 구조 건설에 주력할 계획임. 3차 산업의 내부 구조를 최적화하고, 본부경제를 발전시키며, 혁신 유도·기술 밀집·첨단 가치의 경제 구조 형성에 속도를 내야 함.
  - 마지막으로 민생 보장과 개선을 적절하게 실시하고자 함. 민생 보장과 개선은 정부 업무의 시작점인 동시에 귀결점임. 민생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보장, 혁신기제, 시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주력해야 함.

(출처: 2015년 2월 3일, 北京日报)

## 샌프란시스코市 / 에드윈 리(Edwin M. Lee) 시장

- 샌프란시스코市는 ‘지불가능성 지향(Affordability Directives)’이라는 시정 방향을 밝히고, 도시 차원의 투자를 통해 주택·교육·교통·여성 권리·빈곤문제의 다섯 가지 과제에 초점을 두고 2015년 시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2015년도 도시 행정의 방향은 시민 모두가 지불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튼실한 도시의 경제적 기초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무엇보다 ‘가족’ 중심의 생활 터전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인 경쟁력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함.
- 주택 분야 :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중산층 근로가정에 적합한 주택공급에 힘쓸 것임.
  - 현재 세입자 혹은 주택 소유자가 그들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것임. 치솟는 임대비로 홈리스와 이주율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장기융자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과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 융자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임.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엘리스 법(Alice Act,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을 개정할 것임.
  - 2015년도 11월에 저소득층 주택 채권을 발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자함.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 건설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비영리 주택 건설을 확충할 계획임.
- 교육 분야 : 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을 시행하여 취학 이전 조기 교육의

혜택을 제공함.

- 도시 차원에서 4세~8학년까지의 여름철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전체 학생에게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교통 분야 : 고성능 경쾌전차(LRV, light rail vehicles) 40대를 추가 공급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함.
  - 보행자 안전을 위해 5,000억 원의 교통 기금을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샌프란시스코시는 2015년 최소 20km 이상의 사고다발 위험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 및 재정비할 계획임.
- 여성 권리 : 여성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평등한 고용 여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임.
  - 여성권리회담 개최
  - 가정과 직장 내 폭력 방지를 위한 'NO MORE/NADA MAS' 캠페인 지속
- 빈곤 퇴치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Project 500'를 시행하여, 도시 내 극빈층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정부와 협력하여 개보수하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노숙자들이 빈곤과 노숙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도록 기본적인 숙박과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

<http://sfmayor.org/index.aspx?recordid=775&page=846>

## 시애틀市 / 에드워드 머레이(Edward B. Murray) 시장

- 미국 시애틀市는 2015년 신년사에서 형평성과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발전과 선진성을 강조하고, 2014년 시정부가 시민을 위해 얼마나 진보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고 설명함.
- 시정부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증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직면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할 것을 강조함.
- 도시 성장 및 도시계획 : 시애틀 시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가 1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이에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계획해나가고, 2015년에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정부를 재구성할 계획임.
  - 각 주거지역의 새로운 밀도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각 지역별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
  - 2015년에는 2035년을 내다보는 시애틀 도시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각 세대에 맞도록 기존의 도시종합계획(도시종합계획 업데이트, 교통기금 재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추가 계획 및 건설 등)을 수정할 예정임.
- 교통 분야 : 시민 누구나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시애틀시는 2014년에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민간기업인 우버(Uber), 리프트(Lyft) 등과 함께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Car2Go'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2015년도에는 교통계획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Sound Transit 3'라는 신 개념의 경전철을 도입하여 교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계획임.

- 저소득층 주택 : 소득 불균형의 현실로 주택문제의 계층화도 피할 수 없는 도시문제임. 시애틀의 하위 5위와 상위 5위 지역의 주거비는 19배 이상 차이남. 시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지관리비용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확대해갈 예정이다.
  - 주택공급과 유지관리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계획 역시 주거비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 분야 : 시애틀시는 교육 부문에서 소득, 인종 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흑인과 남미계열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계획임.
- 경제발전 : 시애틀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독특한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고 있는 도시임. 그러나 이러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함.
- 도시정부 성과 : 도시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시정의 변화도 요구됨. 시애틀시는 행정성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반 계획부터 상세한 예산까지의 정보공개를 확대 시행함.
- 치안 및 공공 안전 분야 : 시애틀시는 일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찰력의 확보와 배치, 시애틀 경찰 차원에서 범죄율 감소의 목표를 지원하는 도시정부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http://murray.seattle.gov/mayor-murrays-state-of-the-city-speech-as-prepared/#sthash.EMuVoGT2.jlZaVFcp.dpuf>

##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 2015년 1월 6일에는 파리 시장의 포괄적인 신년사 발표가 있었음. 2015년 파리 시민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바라면서 2015년을 위한 주요 4대 과제(경제 부양, 생태적 전환, 사회연대 강화, 주민 민주주의 강화)와 연간계획을 소개함. 1월 20일 파리시청의 신년식에서 2015년의 주요 계획을 상세히 소개함.

### - 주요 4대 과제

- 경제 부양 : 경제 위기를 견뎌내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직면한다는 맥락에서 경제 부양에 힘쓸 것임. 행정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주택, 교통, 공공 행정 등에 광범위하게 투자할 예정. 파리의 운명은 멈춤 없이 나아가고 다시 세우고 해결책을 발명하는 데 있기 때문임.
- 생태적 전환 : 올해 말, 많은 국가수반들과 해외도시 시장들이 세계기후회의를 위해 파리를 방문할 예정임. 세계 다른 대도시들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파리와 관련 기관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사회연대 강화 : 진보란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이로움이 돌아갈 때만이 의미가 있음. 올해에는 사회연대와 복지 강화에 힘쓸 것임.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음.
- 주민 민주주의 강화 : 파리 시민들의 민주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려 함. 주민 참여예산제를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 - 주요 계획

- 투자 및 투자 유도 : 2015년에 파리의 투자로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단일창구를 개설하고, 기업가들의 지역조사와 공공분야 접근에 편의를 제공함. '푸드 트럭'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40곳을 마련하고 사업공모를 받을 예정임. '환대하는 도시 파리(Paris ville accueillante)' 라벨을 만들어, 파리시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관광객들을 환대하도록 촉진함.

- ‘파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파리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만 호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이는 이달고 시장의 임기 중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음.
- 공해 방지 계획 : 공해 방지 그랜드 플랜. 디젤 자동차를 포기한 파리 주민에게는 패스 나비고(파리시 대중교통 이용카드) 1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무료 주차 혜택을 줌. 시청 업무용 차에서 소형 및 중형 디젤 자동차들을 완전히 배제한 후, 파리는는 지금부터 2015년 여름 까지 파리의 모든 업무용 차에서 디젤 차를 제외할 예정임. 공기 청정 사업인 ‘파리는 숨 쉰다(Paris Respire)’ 사업 적용 지역을 확장할 것임.
- 환경 분야 : 파리 남부와 북부를 잇는 자전거 도로 1개, 숲들을 잇는 도로 1개, 파리 주변의 우회도로 1개를 신규로 개통함. 이 도로들은 점차 구간별로 녹지 조성 도로가 될 것임. 2014년에 공모된 시민제안사업 ‘우리 집 근처에 녹지’를 통해 선정된 200개 장소에 새로운 소규모 녹지를 조성할 예정임.
- 2014년 9월 주민 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대로, 모든 자치구를 통틀어 40개 벽에 식물군을 조성할 계획임. 파리4구의 무시街 2~6번지와 파리5구의 장 드 보베 계단 등 2개의 벽은 이미 조성이 완료됨.
- 민주주의 분야 : 시민들의 시정 제안 플랫폼 ‘시장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Madame la maire j’ai une idée)’를 주민 참여예산제와 함께 개설함. 1월 4일부터 파리 시민들은 본 플랫폼에 주민사업을 제안하고, 오는 9월에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임. 시민단체들이 시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민 가판대’ 4개소를 파리 12구, 14구, 15구에 설치하기로 하고, 파리 곳곳에 ‘시민 자유 발언대’를 세울 예정임.
- 그랑 파리(Grand Paris) : 파리와 교외도시 간의 수도권 공동행정 협력체 구성을 위해, 1월 20~21일 각 자치구마다 1차로 공청회를 개최함. 3월부터 수도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것임.
- 국제 분야 : ‘도시의 외교관들’ 캠페인 프로모션. 이 캠페인은 전 지구적 이슈

를 각 현장의 활동가로부터 찾아 대안을 모색하고, 도시 간에 교환하도록 함. 주민참여적인 외교로서 남녀 불문하고 모든 파리 시민이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세계 대도시 중 특히 베를린, 뉴욕, 런던뿐 아니라 멕시코, 리우, 아비장(코트 디부아르) 그리고 서울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파리-뉴욕 간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1차 주제는 도시들의 민주주의로 결정함. 또한 3월 26일 유럽 도시 시장단 회의를 개최할 것임. 이 회의에서는 연말에 파리에서 열릴 세계기후 회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공산품 수요를 산출할 도시 간 공동구매 투자 등을 논의할 예정임.

[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les-voeux-2015-de-anne-hidalgo/rub\\_9656\\_actu\\_152090\\_port\\_23785](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les-voeux-2015-de-anne-hidalgo/rub_9656_actu_152090_port_23785)

[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anne-hidalgo-presente-ses-voeux-au-conseil-de-paris/rub\\_9656\\_actu\\_152272\\_port\\_23785](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anne-hidalgo-presente-ses-voeux-au-conseil-de-paris/rub_9656_actu_152272_port_23785)